

# 龍仁文化

1985. 6. 30

第 3 號



龍仁文化院

# 龍仁文化

1985. 6. 30

第 3 號

龍仁文化院

## ←군민헌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제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사는 복지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제발하는 한편 알차게, 힘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목 차

|                                |                               |        |
|--------------------------------|-------------------------------|--------|
| 권 두 인 .....                    | 문화원장 .....                    | 5      |
| 경로효친의 생활화 .....                | 용인여자중학교 양 승 대 .....           | 6      |
| 청소년 선도의 길 .....                | BBS경기도연맹·용인지부장 홍재구 .....      | 9      |
| <b>학 교 순례</b>                  | 한국의국어대학교 .....                | 11     |
|                                | 백암종합고등학교 .....                | 13     |
| <b>꽃 꽃 이</b>                   | 영지회 꽃꽂이.....오 민 근 .....       | 15     |
| <b>용 구 문 단</b> <수필>            | 내가 좋아하는 여자...용인상고 안종식 .....   | 16     |
|                                | <시> 복지용인 .....                | 19     |
|                                | 용덕사에서 .....                   | 박 상 돈  |
| <b>기 업 순방</b>                  | 주식회사 녹십자 .....                | 21     |
| 범죄없는 마을 .....                  | 구성면, 중4리 .....                | 24     |
| 터어키 참전기념비 .....                |                               | 25     |
| <b>신 간</b>                     | 佳泉詩集 .....                    | 26     |
| <b>내고장 민요</b>                  | 자 장 가 .....                   | 28     |
| <b>集 姓 村</b>                   | 竹山朴氏.....태성고교 강창희 .....       | 29     |
| <b>지 명 유 래</b>                 | 탁영봉 · 좌전고개 · 민재궁 .....        | 이인영 32 |
| <b>特 輯</b>                     | 土城 ...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정양화 ..... | 34     |
|                                | 石碑文化의 榮辱 .....                |        |
|                                |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이인영 .....        | 46     |
| <b>사 발 통 문</b>                 | 태성중고교 이강수 교사                  |        |
|                                | 문교부추최 경로효친 포스타공모채택 .....      | 57     |
|                                | 어버이 날 행사 .....                | 58     |
|                                | 제2회 피아노 경연대회 개최안내 .....       | 59     |
|                                | 제2회 중고교생 영어회화대회 개최안내 .....    | 61     |
|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및 문예진흥위원 명단 ..... |                               | 62     |
| 편집후기 .....                     |                               | 64     |

## 권 두 언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시작이 반이라 벌써 용구문화 제 3호를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호수(號數)를 거듭할 수록 좀더 충실하고 보다 유익하게 보람있고 알차게 엮어 보려고 편집진에서 애 썼으나, 책을 펴 내놓고 보니 아직 불만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음 호 부터는 더욱 충실히 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며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원색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다보니 옷의 질, 모양, 색상, 더 나아가서는 외부 조건의 알맞은 옷으로 발달하여 각자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하게 되었읍니다. 다양한 옷과 신병용구를 주위와 조화되도록 선택해야 아름다움도 지성미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옷의 조화와 주위환경이 맞지 않을때는 옷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질적으로 폭악한 스웨덴 국민은 9~11세기에 유럽의 전해상을 누비면서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은 바이킹의 후예였읍니다. 조상은 악명높은 해적이었지만 후손은 존경과 동경의 국민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문화국민이며 평화 애호 국민이 되었읍니다. 1814년 나포레온 전쟁 후 지금까지 한번도 전쟁에 가담한 적이 없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주정치 토착화, 경제발전, 사회제도개혁(실업, 노사문제, 노후문제)에 힘썼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악해지지 않고도 잘 살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읍니다. 인간의 평등과 경제평등은 물론 직장에서도 종적인 관계보다는 횡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며 직급의 고하는 업무분담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고 상사와 부하직원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일을 시켜도 명령아닌 부탁조이며 공과 사의 구분이 철저하여 수상이 비행기에 탑승해도 비서가 가방을 들어주거나 시중들지 않고 수상 자신이 가방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며 몸가짐이나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지위가 높을 수록 모범이 되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적 책임의식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게했으며 절대로 사치하지 않고 사회적인 악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다하여 윗물의 맑음을 강조합니다. 스웨덴 국민 각자가 자각하여 서로의 눈을 의식하며 특권제급 없는 평등한 국민으로서 자기분야에 열중하여 해적국민이 선진국이요 평화애호 국민이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피나는 국민의 노력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경로효친의 생활화



용인여자중학교  
교장 양승대



## 1. 산업사회와 전통윤리

近來에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경로효친사상이 특별히 強調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이라고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

우리는 예로부터 人類愛를 바탕으로 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건국이념으로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 오륜(五倫)을 실천해 나가는 정신적 자세인 성·경(誠·敬) 사상,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와 그리고 충성과 신뢰를 강조한 효계충신(孝悌忠信) 사상등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도덕원리로서 生活의 바탕으로 되어왔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도덕원리를 잊어버리고, 더우기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바쁘게 생활하여 오다보니 급기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뒤늦게야 경로효친을 재삼 강조(強調) 하게 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지적(指摘)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전통(傳統)과 정신적 유산(遺産)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훌륭한 정신적인 유산은 경로효친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이후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경이적(驚異的)인 경제 발전의 성과(成果)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수준(水準)의 향상으로 비교적 풍족하고 편리(便利)한 생활을 하다보니 황금만능주의와 지나친 개인주의 가치관(價値觀)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人生)의 삶의 방향을 잃고 드디어는 도덕 윤리 기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한편 가족 구성원은 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獨立)하여 핵가족화 됨으로써 각 개인(個人)과 핵가족은 사회(社會) 속에서 점차 고립화되어가고 친족간의 유대(紐帶)도 약화 되었으며, 특히 부모(父母)는 자기 자녀와의 접촉 기회가 적어져서 훈육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윤리 도덕의 습득이 부족한 버릇없는 아이들을 키워오게 되었으며, 자녀 또한 정서적(情緒的) 불안정 속에서 방황(彷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은 권위(權威)와 신뢰(信賴)

와 사랑을 심어주는 존재였던 노인들이 고독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즉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를 야기케 하여 각종의 수많은 사회(社會) 문제의 근원(根源)이 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이다. 어느 부모(父母)가, 내 자식은 교육(教育)을 잘 시켜 왔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일지라도 나의 자식은 부모의 교육으로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고 같은 또래로부터 보다 더 끊임없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볼 때, 남의 자식이라고 하여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형제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훈제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지도와 경로효친

경로효친이 가정 윤리에서 출발(出發)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래(從來)의 가정이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더라도 경로효친이 교육의 장(場)으로서 가정의 역할(役割)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의 교육관(教育觀)은 대부분 공부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공부 이외의 교육(教育)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닐지.

우리 주변에서 성공(成功)한 사람들이 꼭 학력이 높아서 또는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닐진대 자녀들의 정신교육, 인간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형식적인 가문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정신적(精神的) 뿌리가 있는 자녀교육으로서 가훈(家訓)을 정하여 실천한다든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늘린다든가, 친족간(親族間)의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자연스럽게 자녀(子女) 교육(教育)이 이루어져야겠다.

여기에서는 부모(父母)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價値觀)으로 무장된 부모 자신들이 몸소 조부모를 정성(精誠)으로 모셔서 경로효친을 생활화(生活化) 할때 인간(人間性) 상실(喪失) 문제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의 병폐를 막아내는 정신적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겠다.

효자가 난 집에서 효자가 태어나며 불효한 집안에서 불효자가 나온다는 순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부모(父母) 스스로가 조부모를 공경하며 화목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자녀(子女)와 함께 찾아 뵙는다가, 조부모의 권위 세워 드리기, 생신, 명절 또는 가정의 행사에 자녀를 데리고 참석(參席) 한다든가, 부모의 덕행과 정신(精神)을 일깨워 본받도록 한다든가 등등. 부모와 어른들 부터 모범을 보여 어려서부터 부모를 모시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일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겠다.

한편 노인들은 전통 사회(社會)와는 달리 권위(權威)와 위엄이 약화된 것이 사실(事實)이지만 아래 세대(世代)들에게 신뢰(信賴)와 사랑을 심어주는 노력(努力)과 아울러 사회 변천에 따른 적응(適應) 노력(努力)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일부 노인들은 현대 속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의 병폐에 휩쓸려 자녀의 경제 능력(能力)을 도외시 한 채 소비지향적으로 현실(現實)과 유리되어 가족내에서 독립(獨立)된 존재(存在)가 되거나 불만속에서 여생(餘生)을 보내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자를 보살피며 교육하던 신뢰(信賴)와 사랑은 멀리하고 자기 생활(生活)만을 위주로 하는 경향(傾向)도 엿볼 수 있다.

경로효친 사상(思想)을 바로 잡아 놓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노인들도 책임감(責任感)을 갖고 옛날의 자애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후손 교육에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나라 전래의 효행방법을 현대 생활에 맞게 재구성하여 바람직한 미풍양속이 계승(繼承)되도록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過去)에는 가정교육으로 인간교육(人間教育)이 거의 충분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구체적인 가정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事實)이니 만큼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전달 교육(教育)에 앞서서 전인(全人) 교육(教育)에 관심 제고가 요청(要請)되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의 경로효친 교육은 자기 자신에 의한 의식(意識)을 바탕으로 어버이와 이웃 어른께 경(敬)과 애(愛)를 다하는, 즉 도덕적(道德的) 설교나 행위(行爲)의 강요(強要), 기계적인 행위가 이뤄지도록 하기 보다는 자율적(自律的) 판단과 가치 선택(選擇)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연중에 바른 가치관이 심어지도록 교육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強調)해두고 싶은 말은, 청소년 문제·노인 문제 등 각종 사회(社會) 병폐 현상의 치료는 우리의 전통적 생활 풍속이요, 가치관인 경로효친 사상(思想)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재인식하고 각 가정·학교·사회가 나 자신부터 부모 모시기, 어른 섬기기를 실천하여 자라나는 세대(世代)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병폐를 해결하여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자고 호소를 하는 바이다.

# 청소년 선도의 길

BBS 경기도연맹 용인군지부  
지부장 홍재구

청소년 문제가 오늘날 처럼 심각하게 논의된 시대도 없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어려울때도 없었다고 본다.

1978년도 제 34 차 유엔총회는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제정 선포하여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라는 주제로 내건 세계 청소년의 해를 맞아 세계각국 및 유엔 관련기구들로 하여금 1985년에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1. 인류 미래를 개척하는데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며,
2. 젊은이들에게 인류 결속과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화정신을 확산 심화시키며,
3. 국가 건설과 국제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로 활용토록 하며,
4. 청소년들의 욕구와 열망을 도와주며, 미래 세계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며,
5.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가의 주요 문제에 관한 연구나 이것의 결정에 있어서 - 특히 각국의 경험과 환경,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에 - 청소년층을 포함시켜 참여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있다.

위와같은 결의안 속에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이상을 실현 시켜줄 뿐아니라 민족, 국가 사회발전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속에서 기본적인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 청소년은 없다. 다만, 문제 어른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속에는 문제 청소년보다 문제의 어른과 문제의 사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식이 요청된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쇠신 되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청소년을 위하여」 선도하고, 지도하는 훈육적인 자세로가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마음 가짐으로 청소년과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하겠다.

네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없이 수행된다면 그런 청소년사업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4가지 제언으로 진정한 사업을 원하는 바에 따라 행해질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 항시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들을 산업의 역군으로 보호하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지도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알아두면 상식

### ■ 갈릴레오의 재판 (1633)

갈릴레오는 「세계에 있어서 2대 체계의 대화」를 발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한발 전진시켰다.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지동설은 단순히 가설로서 진실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히도록 강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지동설은 당시 사교의 이론으로 여겨졌고, 이것은 또 「하나님은 5일간 지구를 만들고 나머지 하루동안에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성서의 가르침과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이론은 성서에서의 의문을 더욱 깊게 하는 일이었으므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서도 발매중지가 되었다. 갈릴레오는 69세때 드디어 로마에 호출되어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고문한다는 협박을 받고 1633년 6월 22일 어쩔 수 없이 「지동설은 틀린 것이다」는 자백을 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그 유명한 독백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韓國外國語大學校 京仁캠퍼스

1. 학 교 명 : 한국의 국어대학교

2. 총 장 : 황 병 태

3. 주 소 : 가. (용인캠퍼스)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  
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 4. 연혁개요

- 1952. 12. 30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홍배 박사) 창립
- 1954. 1. 18 —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인가 (초대학장 박술음 박사)
- 1954. 4. 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개교
- 1957. 9. 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신축교사로 이전
- 1958. 3. 17 — 제 1회 졸업생을 내다.
- 1961. 4. 1 — 대학원 설립인가 받음.
- 1962. 9. 1 — 시청각 교육원 설치
- 1963. 12. 16 —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 개설
- 1972. 1. 28 — 무역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을 설치
- 1974. 9. 1 — 외국어 연수원을 부설
- 1978. 10. 17 — 야간강좌 설립인가받아 개설
- 1979. 9. 1 — 통역대학원 및 용인분교 설립인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외국어학부를 서양어대학과 동양어대학으로, 법정학부를 법정대학으로, 상경학부를 상경대학으로, 교육학부를 사범대학으로, 용인분교를 용인대학으로 편제를 조정하고 문리과대학(5개학과)을 신설.

- 1980. 7. 1 — 용인 종합캠퍼스 건설공사 착공
- 1980. 10. 2 — 용인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설
- 1981. 3. 2 — 초대 총장에 김동선 박사 취임
- 1981. 8. 25 — 용인캠퍼스에서 현지 이전 수업 시작
- 1982. 7. 9 — 전자계산실 개관
- 1982. 10. 5 — 용인대학을 용인캠퍼스로 편제 조정인가를 받아 외국어학부 및 상경학부를 각각 어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
- 1983. 10. 29 — 경영정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
- 1984. 3. 2 — 제 2대 총장에 황병태 박사 취임

## 5. 교육이념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창달과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유점인 외국어를 토대로 각 해당 국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교수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및 발전에 기여케 한다.

## 6. 용인캠퍼스 마스터 플랜

용인 종합캠퍼스는 국제교류의 다변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본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미 확보된 80만평의 교지에 연건평 15만평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장차 10개 단과대학에 3만명의 학생과 6개 대학원에 6천명의 학생을 수용케 하게 된다. 2,000년대의 용인 종합캠퍼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이며, 또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1. 학 교 명 : 백암종합고등학교

2. 교 장 : 이 민 구

3.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166

4. 연 력

- 1964. 2. 10 백암농업고등학교 인가 초대 정운호 교장 취임
- 1972. 8. 12 백암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76. 12. 2 백암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81. 10. 23 고등학교 12학급으로 학칙 변경 (보통과 6 학급, 상업과 6학급)
- 1984. 12. 30 대통령 각하 하사금으로 어학 실습실 설치
- 1984. 12. 30 컴퓨터실 설치
- 1985. 2. 14 고등학교 제 19 회 졸업 (184 명 졸업)  
(총 졸업생수 1,849 명)
- 1985. 3. 1 이민구 교장취임

## 5. 교육 방침

- 1) 애국하는 민주시민 육성 (애 국 인)
- 2) 유능한 지성인 육성 (지 성 인)
- 3) 상부상조하는 협동인 육성 (협 동 인)
- 4) 성실한 기능인 육성 (실 업 인)
- 5) 순수한 건강인 육성 (기 능 인)

## 6. 노력 중 점

- 1) 학력향상 : 학습 상담활동 강화, 학습자료 활용의 극대화  
자율학습 습관 정착, 면학 분위기 조성
- 2) 생활지도 철저 : 경로효친교육의 충실, 질서의식교육의 강화  
상하급생간 인격존중 지도, 상담활동의 지속화
- 3) 교육환경 개선 : 학교 공원화의 계속 추진, 정서적 교육환경 구성  
교육시설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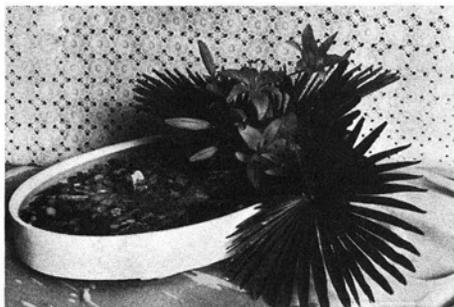
## 7. 특색 발 현

- 1) 자율학습 습관형성 : 상용한자 쓰기, 생활영어 익히기,  
야간 자율학습 이행, 과제 이행
- 2) 특기 신장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 :  
타자실, 어학실, 컴퓨터실
- 3) 환경구성 : 학원의 공원화 계획 수립실천  
개인별 청소담당 구역제 실시
- 4) 학부형의 년 1일 봉사 활동으로 학원의 공원화 조성

## 여름날의 바닷가

영 지 회 꽃 꽃 이  
오 민 근

素 材 : 종려잎, 빈틈나리  
花 器 : 타원형 수반  
花 型 : 경사 자유형



뜨거운 여름날 잠시라도 더위를 잊기 위해 신비롭고 진기한 꿈에 세계를 그려본다. 잡힐듯 잡힐듯 잡히지 않는 꿈에 세계를 그리며 깊고 넓은 수반에 조약돌과 조개껍질을 담고 오묘한 모양에 돌을 모아 바다속 우뚝 솟은 바위를 묘사 형성하고 파아란 물속에 정겹게 노니는 고기 떼를 묘사해 금붕어를 넣어 작은바다를 이루고 한열에 시원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종려잎이 주는 멋과 시원한 느낌, 샛노란

빈틈나리 꽃의 청초함과 신선한 색의 모습, 분무기로 물을 뿌어주어 꽃잎에 맺힌 물방울의 모습이 깊고 넓은 수면과 공간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잠시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쉬임을 얻고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장소는 응접실이나 사무실 큰공간에 놓아 공간속에 예술적 조형미를 감상하며 가족과 사원들이 둘러앉아 물고기가 노니는 작은 바다위에 종이배를 띄우고 옛 추억과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며 더위속에 시원함과 지친 삶속에 활력소를 얻어 삶의 윤택함이 있으리라 본다.

### 《 꽃 는 법 》

아름다운 종려잎으로 1주지(信)로 선택하여 칠푼 오른쪽 앞 옆 80° 위치에 꽃아준다. 2주지(知)는 왼쪽 앞 옆 90°로 꽃는다. 3주지(仁)는 칠푼가운데 0°에 꽃아주고 나리꽃에 특징을 포인트로 하여, 예쁜선을 잘살려 전체 가운데 꽃아 주고, 남은 공간은 포인트  $\frac{3}{4}$  으로 잘라 앞과 옆에 꽃아주고 봉우리를 왼쪽옆과 앞 쪽으로 꽃아 기교있게 처리했다.

## 내가 좋아하는 여자

용인상업고등학교  
안종식

따뜻함, 포근함 그리고 솜사탕 같은 부드러움... 여자를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는 낱말들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남자라고들 한다.

그런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한다. 세상에 남자치고 여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랴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음에 기술하고자 하는 유형의 여자들이다. 우선 깔끔한 여자를 좋아한다. 외형적으로 갖출 것은 갖출 줄 알고 다듬어야 할 때는 다듬을 줄 아는 여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차릴 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의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남편보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그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몸단장한 후에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요즘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고리타분한 남존여비사상의 찌꺼기가 아니겠느냐고목에 힘주고 두눈에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항변한다면 글썄... 내가 좋아하는 여자측에는 들지 못할 것이다. 사랑받기를(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원하는 여자라면, 자신의 형편없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고 쑥스럽게 느껴지고 그럼으로 해서 자제하는 현명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 깔끔한 여자는 외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맺고 끊음이 분명한 여자이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것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저는 여자니까요! 하고 얼버무리려 하는 여자는 깔끔하지 못한 여자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말보다는 표정으로, 분위기로 이야기 할 줄 아는 여자이다. 정말로 아픈 사연, 살을 에이는 듯한 슬픔은 언어(言語)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한국 여인들의 눈물은 그렇게 어설피고 초라한 자기 합리화의 최후의 방편인것 처럼 인식되어 지는 것일까? 남자의 눈물이 여인의 눈물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그대들의 눈물은 멜로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에게나 주어 버리자. ‘이수일과 심순애’

의 '순애'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우리의 누이 '홍도'에게나 주어 버리자. 그리고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여자이고 싶다'는 여자를 좋아한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할 줄 안다는 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조금은 나르시스트일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가 타인(他人)을 사랑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해 있는 여자의 옆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다. 창문 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여자, 멀리서 들려오는 슈베르트의 '송어'에 귀기울이며 콧노래 부를 줄 아는 여자 좋아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다 아름다운 말을 찾기에 넋을 잃은 여자, 추운 날 출퇴근하는 남편을 안스러워하며 그를 위해 털스웨터를 뜨게질하고 있는 여자, 서울로 유학 보낸 맏이의 월사금을 위해 해지는 줄 모르고 받고랑을 타고 고추밭을 매는 어머니, 이런 여인들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몰두할 수 있는 여자는 심지가 굳은 때문이고 그런 여자는 보다 큰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조금은 욕심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친한 친구의 집보다 적음을 한탄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자신의 가슴사이즈가 남보다 작음을 한탄하는, 자신의 결혼반지의 알이 남보다 작음을 부끄러워 하는, 남편의 월급 봉투가 다른 집보다 얇팍함을 한스러워 하고 월급날마다 시큰둥해 하며 불륜을 높이는 그런 따위의 욕심을 말함이 아니다. 선 일곱의 나이에도 콩나물 장사를 해가며 틈틈이 공부한 끝에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는 장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 할 줄 알고 자신의 태만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욕심,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연노(年老)하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서 효부상을 탄 얼굴을 화면에서 대하며 지금껏 소홀했던 점은 없었나 되돌아보고 좀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욕심, 이런 욕심은 아름다운 욕심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욕망으로 채워진 여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위만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여자는 30만원의 월급봉투에도 감사할 줄 알고 쓰임새 있는 살림을 꾸려갈 것이며 링크 코트 사달라고 앙탈부리지 않을 너그러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친구의 험담보다는 좋은 점을 즐겨 말할 줄 아는 여자를 좋아한다.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이 자신이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험담과 증상 모락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그런 말들에 얼마나 식상해 있는가!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나오는 친구에 대한 험담은 우리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할 것인가? 말하기 전에 두번 생각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신중한 사고(思考)후에 행해진 약속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때문이다. “한입으로 두가지 말을 말아야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덕목이니라. “Think twice before - you answer me” 라는 노래도 있었다. 남의 머리에 부어지는 뜨거운 물에도 쟁그리고 아픔의 신음을 토할줄 아는 여자를 좋아한다. 사랑할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타인(他人)을 사랑한다는 것은 他人의 고통까지도 내가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을 통해서만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네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모어 감각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건강한 웃음은 생활의 활력소이고 청량제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므로. “나이키가 무슨 말인줄 알아?” 라고 물었을 때 “프로 스펙스보다 비싼 신발 이름이죠, 뭐!” 하느니 보다는 “나이키란 ‘나에게 이쁘게 키스해 주세요’의 약어예요” 하면서 조그만 입술을 내미는 여자는 얼마나 이쁠까? 알맹이 없는 수다를 떨며 他人의 시선을 끌기에 분주한 여자 보다는 상대의 지루한 이야기에도 참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고도 속상해 하지 않는 여자를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친치 바보이어야 할까? 그러나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물과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 세모난 그릇에서는 세모를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를 둥근 그릇에서는 둥그라미를 이룰 수 있는 물과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 자신이 지닌 본래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때 그때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드러움과 지혜를 지닌 여자이기 때문이다. 독불 장군으로 존재하려 여러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순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양보의 미덕을 지닌 때문이다. 많은 사설을 늘어 놓았다. 이 사설들을 한데 모아서 한사람의 여자를 만든다면 어떤 형상일는지 두렵기도 하다. 너무나 진부한 욕망, 세속적인 바람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도 떨어버릴 수 없다. 하지만 부조화(不調和)된 모자이크 속에서도 희미한 영상만은 그려 보고자 했다. 眞·善·美·貞·淑·賢을 지닌 여자를 도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맺고자 함은 지나친 욕심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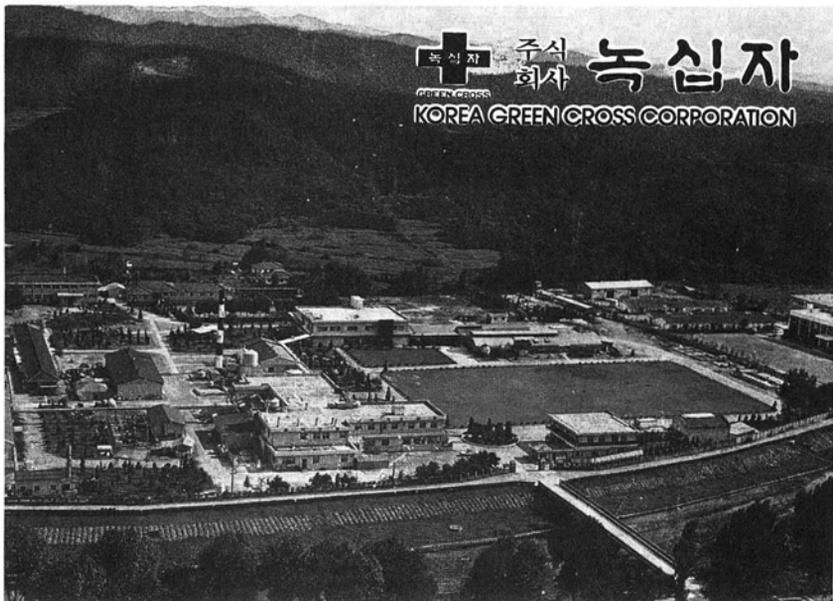
## 龍德寺에서

몸이사 樹木속에 호올로 거닐어도  
가슴 깊이 솟아 넘는 情이야 하늘편가  
흐르는 냇물 가득히 마음 떠워 보내리

世俗을 내려보며 山과 마주 앉았노니  
말없는 이 미소에 답할이 그 몇이리  
한 줄기 맑은 바람만 이내마음 아는 듯

향사르고 두 눈 감아 좌선하는 스님베여  
세상사 잊고자는 바램 또한 我執인 걸  
모든 것 大我로 여겨 博愛함이 어찌리





社 訓

- |      |   |
|------|---|
| 1. 人 | 和 |
| 2. 創 | 意 |
| 3. 成 | 就 |
| 4. 奉 | 仕 |

□ 녹십자의 의미

녹색 ; 번영, 풍요, 번영의 뜻

거창하고 추상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계속 뻗어나가되 영화롭고 심적, 물적으로 넉넉하고, 화목하고 아늑한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담긴 녹십자 가족의 바람을 나타낸다.

십자 ; 희생, 봉사, 사랑의 뜻

종교적, 철학적인 오묘한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양보를, 굶은 일에 내가 먼저, 이웃을 내가족 같이,

사회를 위한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는 소박한 자세를 의미한다.

□ '84 녹십자 가족의 생활신조

1. 근검, 절약, 저축으로 외채를 줄인다.
2. 가정의 화목은 나의 친절, 나의 인내로 부터 이루어진다.

□ 연 령

1967. 10. 수도 미생물약품 판매 주식회사로 발족
1969. 1 극동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0. 12. 미국 Cutter Lab과 혈액분획 제제 제조를 위한 기술제휴
1971. 7. 혈액원 개원
1971. 10. 주식회사 녹십자로 상호변경
1971. 11. 혈액분획제제 공장준공
1972. 11. 간염백신 개발에 착수
1973. 5. 일본 녹십자사와 뇨효소제제인 Urokinase 제조기술 지원계약 체결
1977. 11. 부산공장 준공
1978. 7. 주식공개
1980. 10. 녹십자 연구동 준공
1981. 10. 인터페론 생산개시
1982. 2. 유전공학 연구실 가동

1982. 10. Bio-Science Reference Lab 운영

1982. 11. 간염백신 공장 준공
1983. 8. 간염백신 생산 허가 취득
1984. 5. 재단법인 녹십자연연구소 설립

주식회사 녹십자는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2만여평 대지위에 신갈공장을 세워 녹십자의 구심체로서 연간 약 25만 ㎏의 혈장 처리 능력을 갖추고 1,400 ㎡ 규모의 냉실을 비롯하여 최신의 생산기기, 완전히 차단된 무균실, 각종의 분석장비 및 동물 실험실 등을 설치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과학적 생산 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GMP제도 도입실시로 모든 생산 활동의 표준화를 기하여 보다 신뢰받는 우수 의약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원료의 다양화와 폐기물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므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하는 새로운 사업목표 아래 지난 77년 11월 부산시 부산진구에 세워진 녹십자 부산공장에서는 전국의 주요병원에서 병동차에 의해 수집되어지는 태반으로 부터 인혈청 알부민의 원획분을 생산하고 있다.

녹십자는 보다 전문적인 의, 약학 지식을 요하는 특수 의약품 분야개발, 생산뿐 아니라 품질관리에도 매우 까다로

은 제품들이기에 원료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각 제조공정별로 품질관리에 남다른 힘을 들이고 있다.

전 공정에 GMP제도를 도입하고 각종의 최신분석장비, 실험기기, 동물 실험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굳은 의지로 신제품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온 녹십자는 최고의 연구시설과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을 토대로 특수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을 쌓아가고 있다. 이와같은 기술 축적이 바탕이 되어 최근 10여년 동안 연구해 오던 B형 간염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항 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 및 간염 인면역 글로블린, 면역혈청검사 시약 등이 자체 개발되었다.

또한 막대한 연구비와 최신시설을 동원하여 종합연구소를 설치, 첨단 기술인 유전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모든 질병의 보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각종의 임상검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의학계가 지향하고 있는 예방 의학면에서 볼 때 이 는 매우 중요하다」고 녹십자는 강조하며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곳곳에 첨단의 기술과 기기를 지닌 체계적인 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그 수요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녹십자에서는 이

와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코저 서초동 연구동내에 Bio- Science Reference Lab 을 운영하고 있다.

### 질병없는 사회!

이는 전인류의 이상이며 녹십자의 이상이기도 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남들이 외면해 온 특수 의약품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지 17년여.

외로운 이 길을 오직 정성만을 가지고 우직하게 걸어왔다고 한다.

녹십자는 국내 약업계의 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계의 기초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 내야 된다는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달래며 일시적인 욕망을 유보하면서 풍요로운 내일, 번영된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남보다 더 노력하며, 양보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가족 심벌을 녹십자로 정했다고 한다.

녹십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소유하는 지금의 작은 만족보다는 미래의 숲을 가꾸는 즐거움으로 이들을 하나 하나 성취를 해나가며 소중한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욱 귀를 기울여 사회와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 범죄없는 마을

### 용인군 구성면 중 4리

지난 5월 1일 수원시민회관에서 「법의 날」에 수원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용인군 구성면 중 4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다. 이 부락은 총 66 가구에 남자 165명, 여자 143명 등 총 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죄행태가 집단이든 개인이든 크고 작은 사건이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 부락은 지난 80년 부터 이장직을 맡고 있는 「이 재규」(50세)씨를 중심으로 부락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사는 마을로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밭이 18.4ha, 논은 20.7ha로 총 39.1ha에 지 않으며 대다수가 산다랑치인 비록, 적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지만 마음이 풍요로와 서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정으로 뭉쳐진 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해발 450여m의 석성산을 두고 부락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 또한 부락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새로 다른 길이 개통되는 바람에 국도에서 군도로 격하되었으며 현재 비포장으로 용인~수원간 정기 시내버스만 시간적으로 통행을 하고 일반차량은 통행이 드물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락은 아직 시골정취가 물씬하게 풍기며 오손도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 이 부락은 평균 생활수준이 중류급 이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들의 향학열이 대단하다.

「이 재규」이장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것을 부락민과 더불어 명예롭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이웃뿐만 아니라 부락간에도 서로 상부상조토록하여 잘사는 마을로 가꾸며 범죄없는 마을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번에 받은 300만원 지원금은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자금으로 여의치 않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 터어키군 참전기념비

터어키군 참전기념비는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 산 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념비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틀게이트에서 서울 상행 5km지점인 마성 인터체인지 바로 앞 960평 대지에 1974년 9월 6일 국방부 참전비 건립위원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비의 기단높이는 2.2m이고 탑의 높이는 18m이다. 기념비의 탑 상부 양쪽으로 터어키의 상징인 터어키 국기가 양각되어 있고 탑전면에 3인의 터어키군이 앞에 총을 들고 전진하는 듯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며, 이 동상의 높이는 2.2m이다.

기념비 전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유엔의 기치를 들고 터어키 보병여단은 한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침략자와 싸웠다. 여기 그들의 전사상자 3,064명의 고귀한 피의 값은 헛되지 않으리」

다음은 터어키군의 파병부터 개선 귀국까지의 전투 내역이다.

1950. 7. 25. 터어키 정부 한국전 파병 결정

1950. 10. 17. 지상군 부산도착

1950. 11. 26 ~ 1950. 11. 30. 군우리, 와원, 선림리 전투



1951. 1. 13~1951. 5. 23 의정부, 연천, 퇴계원지구 전투

1951. 6. 7~1951. 6. 19 금화지구 전투

1951. 10. 3~1951. 12. 20 철원지구 전투

1952. 2. 24~1953. 1. 29 단장의능선전투

1953. 5. 3~1953. 5. 29 네바다 캠프렉스전투(판문점 지구)

1953. 7. 27~1966. 7. 9 군방어 작전 지역(의정부) 후방경제 임무 수행

1966. 7. 10 개선귀국

## 가천 (佳泉) 詩集

가천 송요중(宋堯重) 선생의 유고집이 가천시집추진위원회 최봉수 編으로 출간되었다.

크라운판 양장 280 면에 1,043편의 漢詩가 수록된 이 시집은 가천 선생 생전의 詩作을 묶은 것으로써, 龍仁에서 漢詩集이 出刊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천 선생은 생전에 용인의 백구시단을 주도해 온 문인으로써 수원외 화흥 시단을 비롯하여 전국 유림의 문단에 널리 알려졌던 분이다.

광무5년(1901)3월9일 출생 1983년 3월15일 하세할 때까지 84세의 수를 누리면서 박식, 강중한 문체로써 일사일물의 대상과 변화를 모두 시의 소재로 삼아 왔음을 엿볼 수 있다.



3월 긴 제(堤)에 버들빛이 새로운데  
 옛 사람을 몇번이나 위성(渭城)의 봄에 보냈느뇨  
 하늘 하늘 드리운 그림자는 재촉하는 나귀의 등에 떨치고  
 역력히 춤추는 허리는 지나는 연로에 고르구나  
 이별의 한은 소연한 먼 역에 어리고  
 지난 회포는 의의히 도연명의 이웃에 사무쳤노라  
 삼하의 변화한 빛을 장차 홀로 접하니  
 오가며 노는 이들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자주 하는구나.

三月長堤柳色新  
 古人幾送渭城春  
 搖搖垂影策驢拂  
 歷歷舞腰沿路均  
 別恨悄然望遠驛  
 古懷依依戀陶隣  
 三夏繁華將獨占  
 遺遊人聚散頻

열은 푸르름과 귀여운 꽃다움이 눈앞에 새로우니  
 위성에 남은 운치가 이봄에 또 새롭구나  
 가는 허리 연약한 떨기는 신선이 춤추는 것 같고  
 일만잎과 천의 실가닥은 휘늘어져 한들거리는구나  
 다정한 옛친구는 일찌기 도연명의 집에 머물렀는데  
 풍류는 몇번이나 역촌의 이웃을 지났는고  
 알지라 뻑뻑히 보내고 이별하는 것이 비록 괴로울지라도  
 인간이 가지귀기를 자주함을 원망치 말지어다.

嫩綠妍芳瞥眼新  
 渭城餘韻又今春  
 纖腰弱朶仙仙舞  
 萬葉千絲嫋嫋均  
 雅契曾留陶今宅  
 風流幾度驛村隣  
 知應送別雖多苦  
 勿怨人間折太頻

— 佳泉詩集 春柳 中에서 —



## 竹山 朴氏의 故鄉 龍仁

泰成高等學校  
姜昌熙

죽산 박씨(竹山 朴氏)는 신라 첫 임금 박혁거세를 시조로, 고려의 공신인 박기오(朴奇晤)를 득관조(得貫祖)로 하고 있다.

박기오는 신라 제 29대 경명왕(景明王)의 8왕자중 네째 언립(彦立 竹城大君)의 아들이라고 박씨네 족보는 밝히고 있다.

고려초 공신으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라 죽산(竹山)을 식읍(食邑)으로 받아 후손들의 본관이 됐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그의 후대에서 철성백파(鐵城伯派)·찬성공파(贊成公派)·대부경파(大僕卿派)·문광공파(文匡公派)의 4파로 갈렸다.

철성백 박서(朴犀)는 중조 기오(奇晤)의 9대손이다. 고려 고종 18년 살리타이(撒禮塔)을 대장으로 하여 쳐들어온 몽고군을 철주(鐵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을 벌안간 치고, 구주(龜州)에서 성을 굳게 지켜 버틴 공으로 후일 벼슬이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고려조는 그의 위대한 공로를 기려 그 후손에게 음성과 고성(固城)을 식읍으로 주어 그의 후손중 일부가 음성박씨(陰城 朴氏)와 고성박씨(固城 朴氏)로 분관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공 박전지(朴全之)는 4대파중 후손이 가장 많아 조선시대에 상신(相臣) 2명을 배출하는 등 죽산박씨의 이름을 크게 높혔다.

중조(中祖) 기오의 11대손이자 전법판서 휘(暉)의 아들인 행산(杏山) 박전지는 「고려시대 4대시인」으로 꼽히는 문장가이다. 원나라에 가서 그곳 명사들과 교류했고, 원세조(元世祖)의 사랑을 받아 정동성도사(征東城都事)로 임명받았다. 충선왕(忠宣王) 때 밀직부사(密直副使)·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냈고, 연흥군(延興君)에 봉해졌으며, 충숙왕(忠肅王) 때는 수침의찬성사(守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충숙왕 때의 공신 박원(朴遠)은 그의 아들이며, 죽산군(竹山君) 문보(文珣)·문충공(文忠公) 덕용(德龍)·판서 수용(壽龍)·제학(堤學) 문화(文和)·충현공

(忠顯公) 문수(門壽)는 그의 손자이다.

충현공 박문수는 고려말 정승으로 공양왕 4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죽산 박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39명의 문과급제자와 영의정 박원형(朴元亨)·박홍구(朴弘耆) 등 2명의 상신(相臣)을 냈다. 박원형은 문종때 호당(湖堂)에 뽑혔고,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佐翼公臣)으로 판서를 역임했으며, 세조 13년 이시애란(李施愛亂)을 평정하고, 좌의정에 올랐다. 예종(睿宗)이 보위에 오르자 익대공신(翼戴功臣) 이등으로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져 영의정에 이르렀다. 한평생을 청렴과 검소를 신조로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아 세종은 그를 가르켜 급암(汲黯)〔한나라의 직언을 잘한 간신(諫臣)]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의 5대손이며, 도정(都正) 박란영(朴蘭英)의 아들인 박홍구(朴弘耆)는 선조 15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광해군 말년에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벼슬이 짝이고, 다음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광해군 복위를 음모했다는 조카 박윤장(朴允章) 사건에 연루되어 심문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숙종 17년 신원(伸冤) 복관됐다. 좌상 홍구(弘耆)와 동기간인 박신용(朴信龍)은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인조 정유 1월 역신 강홍립(姜弘立)과 이윤(李潤) 등이 적을 이끌고 침공하자 권지중군(權知中軍)으로 적을 용만(龍灣)에서 막다 순절했다. 또 박원(朴遠)의 10대손인 박명현(朴名賢)과 11대손인 박명용(朴命龍)은 무장으로서 가문을 빛낸 사람들이다.

박명현은 선조 29년 이몽학(李夢鶴)이 난을 일으켜 홍주(洪州)를 위협하자 목사(牧使) 홍가신(洪可臣)의 휘하에서 임득의(林得義)와 함께 성을 지키며, 청양(靑陽)까지 추격하여 반란군을 섬멸했다. 정유재란때에는 토포사(討捕使)·충청도방어사(忠淸道防禦使)·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여 선조 37년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이르고 연창군(延昌君)에 봉해졌다.

광해군때 무과에 급제한 박명용은 형님인 성룡(成龍)과 정유재란때 순절한 무인이며, 뒷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때 권율장군의 막하에서 행주대첩에 큰 공을 세운 박계성(朴繼成)은 충현공 문수의 8대손으로 정유재란때 구례(求禮)에서 전사했다. 그의 동생 승성(承成)과 증계 언정(彦貞)도 진주성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여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은 비문을 지으며, 「한 집에서 삼충(三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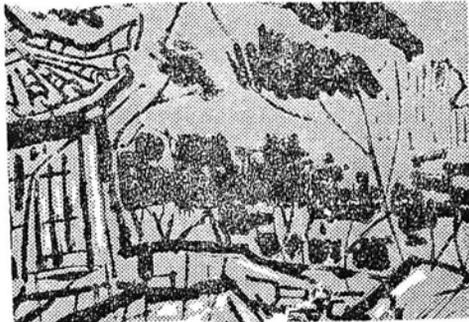
났음은 고경명(高敬命)과 비교가 되나 효열이 더 있으니 장한 일이라고 하였다.

근세 인물로는 3·1 운동 이듬해 형 박치조(朴治祚)·박건채(朴健采)와 함께 평안북도 선천군청(宣川郡廳)과 경찰서에 포탄을 던져 파괴하고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 박치의(朴治毅)가 국난에 목숨을 던지는 충절의 전통을 이었다. 고종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지낸 박주현(朴周鉉)은 남원(南原)에 내려가 군민회(郡民會)를 조직하고 만석의 가산을 풀어 항일운동의 군자금을 제공했다가 일본군대에 체포되어 고문끝에 순사했다.

조선시대에 39명이 문과에 급제를 하여 많은 일꾼을 배출했고, 충효전통에 이어 효자·열녀를 많이 배출하였던 죽산 박씨의 집성촌(集姓村)이며 고향인 부락은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 하리이다.

죽산 박씨가 그곳에 터를 잡기는 조선시대 예종(睿宗) 때 영의정을 지낸 문헌공 박원형(朴元亨)이 일찌기 전국을 돌며 자신의 묘터를 찾다가 지금의 안성군 삼죽면 비봉산 아래 터를 잡았는데, 아우인 박원정(朴元貞)이 먼저 세상을 뜨자 그 자리를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그 옆 하산(下山) 부락 뒤쪽산에 묻혔다고 한다. 후손들이 모여 산소를 모시고 살면서 마을을 이루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마을에는 청림으로 직언을 서슴치않은 명재상이며, 이 마을에 입향(入鄕)한 조상인 박원형의 묘소와 연흥군(延興君)의 묘소등 죽산 박씨의 선조들의 묘소와 사당이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충효의 죽산 박씨 전통은 그대로 이 마을의 전통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순조(純祖) 때 효행으로 온 마을을 감화시킨 박인영(朴仁永)의 정문등이 그 상징으로 지금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다. 국사봉 아래 널따란 왕자들 마을인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 하산부락이 죽산 박씨마을이며, 부자마을이고 충효의 마을이다. 효자·열녀가 많이 나고 이웃끼리 사이가 좋은 것이 이 마을의 자랑이다.



◆ 탁영봉 · 한림대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자연농원 모노레일 유기장이 있는 서북쪽 낮으면서 동산. 이곳을 옛날에는 「한림대(翰林臺)」라고 했고, 그 산봉오리를 「탁영봉(濯纓峰)」이라고 불렀다.

단종 계유년(1454)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세조 갑자(1456)년에 문과에 급제, 한림학사를 거쳐 사헌부 지평(持平) 공조정랑을 지낸 바 있는 금산(琴山) 김구(金龜)가 만년에 탁령(濯纓) 김일손(金鼎孫)과 더불어 이곳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한림대는 바로 「한림학사」를 지낸 김구가 은거하던 곳이라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탁영봉」은 김일손의 호에서 유래된 지명인 것이다.

김일손은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성종조에 춘추관 기사관으로써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弔儼帝文)을 수록한 일로 해서 무오사화 때 처형된 인물로써도 유명하다.

이 두분이 은인자중, 담소하면서 때로 시회를 즐기던 옛 「한림대」와 「탁영봉」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수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다. (해동삼강실록)

◆ 좌전고개

원삼면과 내사면을 경계하는 좌전고개는 본래 좌찬현(左贊峴)으로 불리워 졌던 곳이다. (邑誌)

수백년 동안 사람이 나고 죽으며 또 흐르는 세월따라 구전되는 지명도 조금씩 변형되어 「좌찬」이 「좌전」으로 변해버렸다. 「좌찬현」은 본래 조선조의 관직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 정종때의 무장(武將)이던 박포(朴苞)라는 사람이 정도전의 난때에 방원을 도와 큰 공을 세웠으나 논공(論功)이 박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다가 이곳

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박포는 방간을 도와 방원과 싸웠으나 패한 후 선동죄로 참수되었다. 이때 박포의 벼슬이 좌찬성이었는데 그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지역(고개)을 지칭할 때 좌찬현(左贊峴) 즉, 좌찬성 고개라고 했던 것이 「좌찬현」으로 되었고 이것이 변형되어 오늘날의 좌전(左田)이 되었다.

그의 묘소도 이 부근에 있었다고 전하나 실전되었다.

#### ◆ 민재궁

구성면 상하리 소재의 속칭 「민재궁」 또는 「민자공」은 묘(墓)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지금 흥국생명 연수원이 들어선 바로 옆에 풍창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의 묘가 있다.

풍창부부인 조씨는 여양부원군 민유중(閔維重)의 아내이자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친정 어머니(生母)가 되는 분이니 곧 숙종의 장모가 되기도 한다.

부부인(府夫人)이란 조선조에서 왕비의 어머니나 대군(大君)의 아내에게 주던 최고의 호칭으로써 품계로는 정일품이다.

이 분이 하세한 후 이곳에 안장되었는데 이 묘(墓) 자리는 용인에서 3大地 8明堂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곳이며 옛날에는 이 일대가 민유중 후손에게 내려진 사패지이기도 했다.

왕이나 왕후의 관(棺)을 재궁(槩宮)이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석관(石棺) 위에 「槩宮」이라고 썼던 것도 이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선조에서는 왕의 장인 혹은 장모까지도 「재궁」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이처럼 절대세력, 상당한 지위, 존귀한 품위를 누리고 지내온 부부인의 묘를 「아무개 아내 묘」라고 마구 부르기에는 하류 서민층에게서는 주저스러웠을 것이고, 또 불경하고 송구스러운 언사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재궁」이라고 높혀 호칭해 온 것이 오늘의 민재궁 또는 민자공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원삼면 맹리소재 토성에 대하여

〈퇴미산 토성과 행군이 토성〉

정 양 화

### 1. 발견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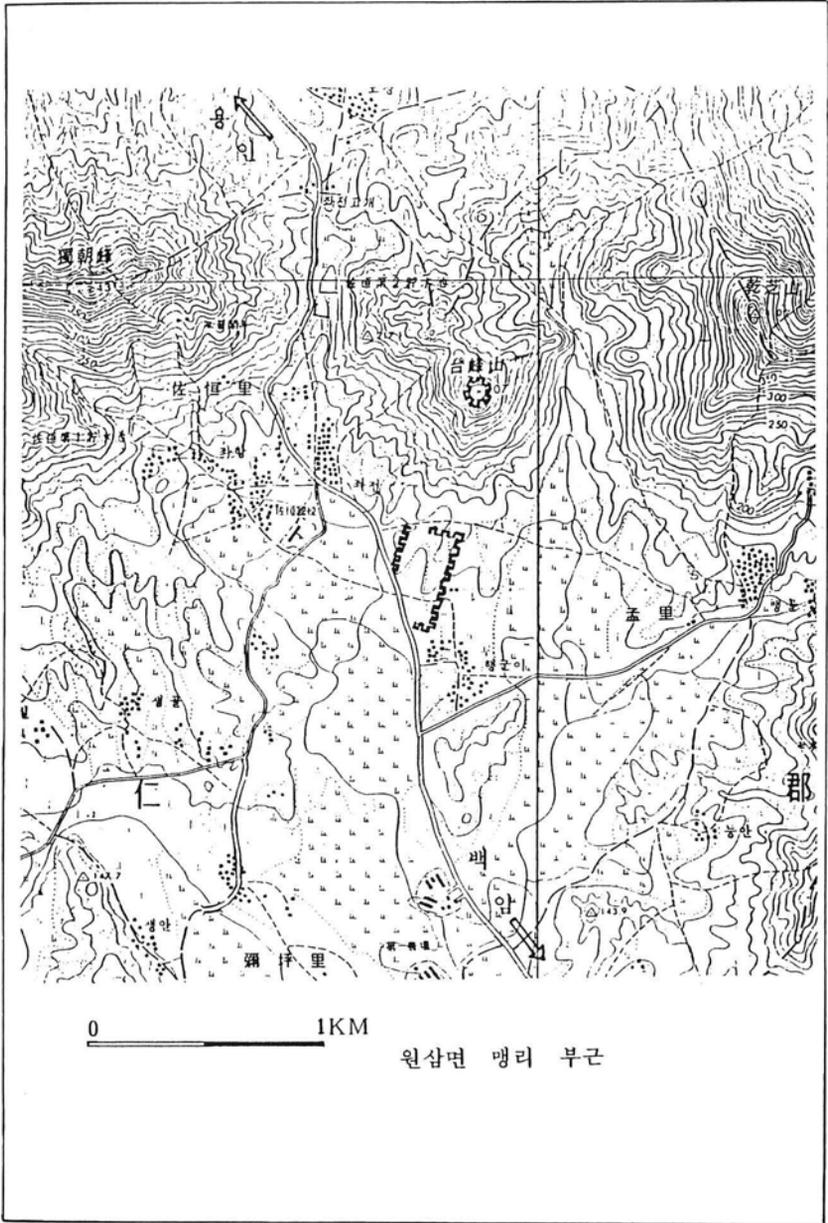
지난 5월경 원삼면 일대에 대한 답사도중 원삼면 맹리 거주 최용출씨로부터 맹리를 중심한 지명에 관해 설명을 듣던중 성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명 가운데 기념이, 행군이, 태평촌등 인근 지명이 맹리, 좌항리 일대의 역사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6월 1일 이인영 위원과 원삼면 축성리 소재 한구(韓述)효자각을 답사하고 돌아오던중 토성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 성의 소재를 확인하고 대충 답사했으나 날이 저물어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다. 6월 6일 김정근 문화원장님과 그리고 이인영 위원과 현장을 답사하고 대략의 길이를 실측했다. 실측 결과 좌전쪽 성벽의 길이가 약 240m 맹리쪽 성벽의 길이가 약 400여m로 확인되었고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를 감안해보니 전체 길이가 약 1km정도의 장방형 토성임이 판명되었다. <사진 1>

6월 16일 현지를 조사하여 2차 답사때보다 행군이 쪽으로 성벽이 약 100여m 이상 더 연결되어 있었고 직각으로 꺾어진 흔적이 확인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더 컸음이 밝혀졌고 퇴미산으로 불리우는 성 북쪽의 봉우리를 답사하여 정상에도 소규모의 토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성에서 퇴미산 쪽으로 맹리로 향한 길이 있고 길왼쪽으로 조그만 골(절개지)이 있어 퇴미산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를 끊어 놓은, 인공이 가해진 것이 틀림없는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직 정확한 실측이나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번에 발견된 토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우리고장의 성(城)

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적 방호(防護)시설을 말하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랜 연륜(年輪)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불





<사진 1> 실측광경(동벽)

리웠을만큼 많은 성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곽은 지리적 위치 축성재료,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지리적인 위치를 기준하면 산성(山城)·평지성(平地城)·국경성(國境城)·해안선(海岸城)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축성재료를 기준하면 토성(土城), 석성(石城)과 바깥은 돌로 쌓고 안은 흙으로 쌓은 토석성(土石城) 및 나무로 만든 목책(木柵)이 있다. 형태상으로 구분하면 만월성(滿月城), 반월성(半月城), 방성(方城:사각형), 웅성(甕城), 장성(長城)이 있고 또 기능을 참고하면 도성(都城), 읍성(邑城), 산성(山城), 연락성(連絡城), 전략성(戰略城), 주성(主城), 부성(副城), 산채(山寨)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성은 험한 산위에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적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산성은 산기슭에서부터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연결되는 포곡식(凹谷式) 산성과 산봉우리를 모자테처럼 휘돌아 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나뉘어 진다. 일반적으로 산성에는 주성(主城)과 부성(副城)이 있으며 주성에는 병기, 식량, 연료의 저장과 우물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우리 고장의 성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남사면 아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처인토성(處仁土城)이 있고 포곡면과 구성면, 그리고 용인을 경계에 있는 석성산 위에 보개산 석성(寶蓋山石城)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마성 인터체인지에서 북쪽, 즉 자연농원 입구 위에 할미성(老姑城)이 있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포곡면 신원리에 선장산 고성(禪長山古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중 처인토성은 고려 고종때(고종 19년, 1232) 몽고의 제 2차 침략을 맞아 우리 용인의 선조들과 김윤후 장군에 의해 적장 살타타이를 죽이고 몽고의 침략을 격퇴한 유명한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복원되어 있고 길이는 약 425m 정도이다. 성산 위에 있는 보개산성은 석성(石城)으로 상당한 규모의 석성이나 동쪽 성산 윗절 부근의 성벽과 동문지(東門址)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고성(할미성)은 보개산성의 부성(副城)으로 생각되며 석축이 무너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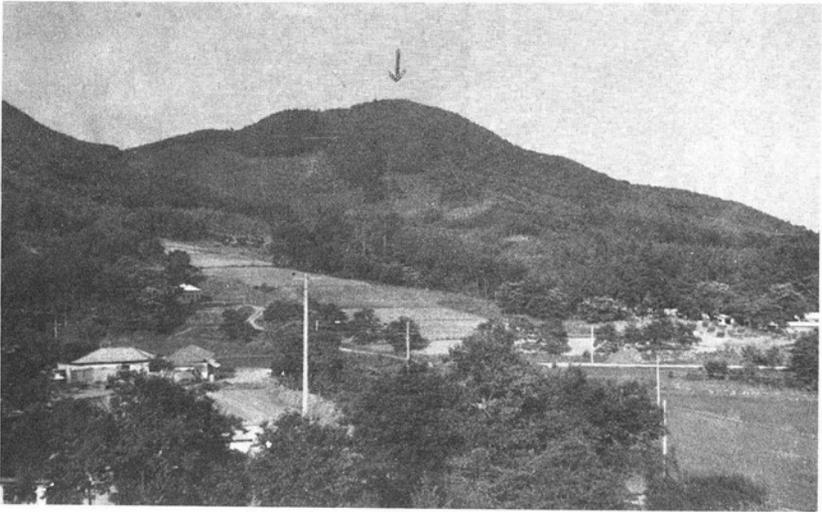
선장산 고성은 유일한 기록이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보이는 것으로 수차 현지를 답사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계속적인 답사를 필요로 한다.

이번에 발견된 토성을 더하면 우리 고장에는 토성이 3곳, 석성이 2곳, 있는 것이 되며 그중 처인성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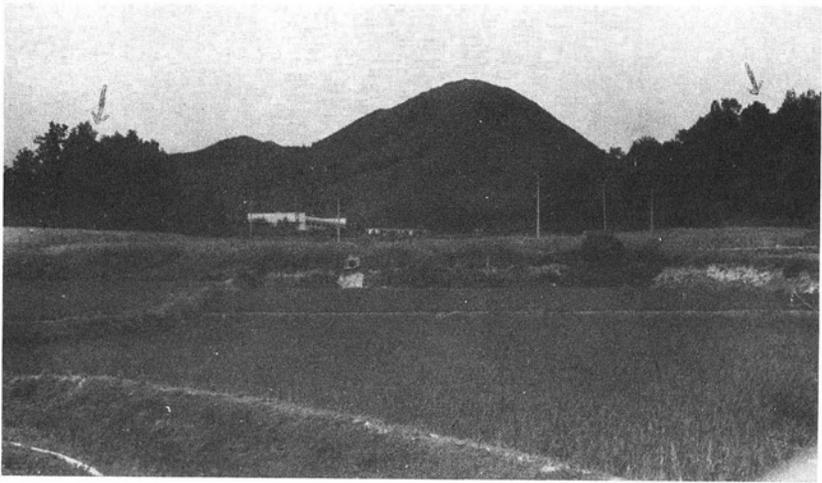
### 3. 퇴미산 토성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좌전 부락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에는 태봉산(台峰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퇴미산, 퇴비산(堆肥山) 또는 태미산(台尾山)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높이가 307m이며 약 20-30분 정도이면 오를 수 있다.

용인에서 백암으로 뻗은 포장도로가 좌전 고개를 넘어가면서 첫번째 나오는 동비가 좌항리인데, 도로를 중심하여 왼쪽이 좌전(佐田) 오른쪽이 항골(恒골)이라고 하는데 항골에 좌항 국민학교가 있다. 좌전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좌항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에서 100여m 더 가면 도로가 우측으로 꺾이게 되며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소로가 있으며 그 길이 바로 맵리로 넘어가는 길이다. 길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에는 과수원이 오른쪽에는 시멘트 벽돌공장이 있으며 조금 더 가면 농선 위쪽에 아트막한 고개가 나타나며 그곳이 태미산과 행군이토성을 잇는 능선의 한 지점이다. 주유소를 지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은 백암방면으로 이어지며 좌전에서 약 1km 정도 내려가면 원삼농협 행군 분소가 있는 행군이에 다다르게 된다. 좌전에서 내려가 맵리 입구에서 부터 포장도로 왼쪽에 얇은 능선이 나타나며 참나무, 소나무가



<사진 2> 서쪽에서 본 퇴미산  
앞의 마을이 좌전이다.



<사진 3> 남쪽에서 바라본 퇴미산  
왼쪽 숲속에는 행군이 토성 서쪽벽이 오른쪽에는  
동쪽벽이 있고 정상에 퇴미산 토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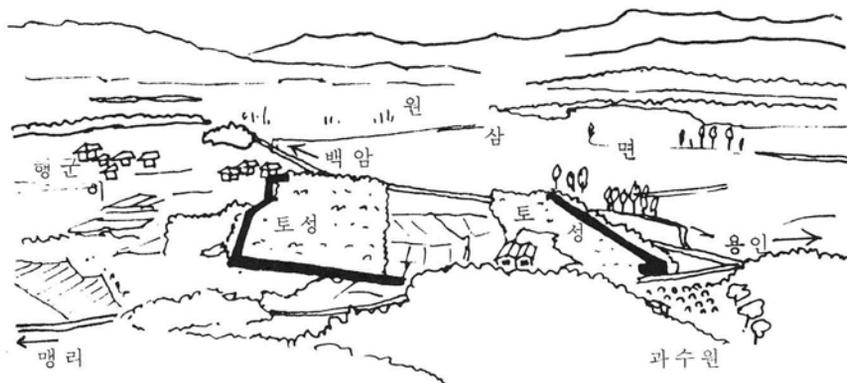
우거져 있고 길과 나란히 뻗어 있는데 바로 행군 토성의 서벽(西壁)이 된다. 좌전 부락 뒤편에는 좌향 제 2저수지가 있으며 도로에서 건너편 능선이 남쪽으로 연결되어 퇴미산을 이루고 있다. <사진 2, 3> 퇴미산은 정상에서 보면 동서의 폭보다는 남북의 길이가 더 크며 키를 넘는 3-4 m쯤 되는 소나무 참나무 등의 잡목이 우거져 있어 다니기가 불편하다. 정상에 서서 남쪽을 보면 원삼 일대가 한 눈에 바라 보이며 오른쪽으로는 좌전고개 우측의 독조봉, 용실고개 등과 왼쪽으로는 약 1 km 정도 동쪽에 전지산과 건너편에 수정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전망은 더할 나위없이 좋으며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능선 끝에 행군이 토성에 위치하고 있다.

퇴미산 토성의 길이는 약 150 m 정도로 추정되며 축성방법은 정상부근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바깥쪽은 깎아내리어 급경사를 만들고 안쪽에서 흙을 파내어 깎아낸 바깥쪽의 위에 덧붙여 쌓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거의 붕괴되어 평지가 되다시피 했으나, 남쪽 부분의 약간과 서쪽 부분의 일부는 안쪽이 낮게 남아 있어 성벽 같은 모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성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토성이라기 보다 소루(小壘), 또는 보루(保壘)였을 가능성도 있다.

#### 4. 행군이 토성

행군이 토성은 퇴미산 토성과는 달리 거의 평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4> 퇴미산 정상에서 행군이 토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능선은 경사도가 50-60°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린 능선은 잡목이 우거지고 통행이 불편한데, 좌전에서 백암을 잇는 도로에서 맹리로 넘어가는 소로 부근으로 가까이 내려가면 5-10°의 완만 경사로 바뀌게 된다. 맹리로 넘어가는 작은 소로를 건너 내려가면 곧 토성의 북쪽 벽에 다다르게 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흘러 내리는 북벽은 약 76 m 정도이며 비교적 원형(原形)을 간직하고 있다.

우측에서 시멘트 벽돌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불과 몇년전 까지만해도 성벽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좌전 백암간 도로와 연해 있는 서벽(西壁)은 바깥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장 안으로 들어간 곳은 성의 안쪽이 크게 훼손되어 성벽 성벽 윗부분의 일부와 바깥의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공장에서 도로 쪽으로 넘어면 묘지가 2기(基)있는데 묘지가 등지고 있는 성벽은 거의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서쪽의 벽은 남쪽으로 더 가면 도로와 만나게 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끊기어서 나머지 길이나 형태를 짐작할 수 없다. 서쪽에서 남아 있는 성의



<사진 4> 퇴미산 정상에서 본 행군이 토성



<사진 5> 좌향국민학교에서 바라본 행군이 토성  
가운데 능선에 성의 서쪽벽이 있고 뒷산이  
수정산이다. 왼쪽의 길이 맹리 입구이다.

길이는 약 240 m 정도이며 중간부분과 중간보다 조금 북쪽에 성벽을 가로 지르는 길이 있던 흔적이 있다. <사진 5>

행군이 토성 가운데 가장 길고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것은 동벽(東壁)으로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길이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약 420 m 정도이고 중간에 지그재그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북벽과 만나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140 m 지점에 길이 나 있어서 성벽이 끊겨 있다.

동쪽 성벽이 남아 있는 능선 부근을 광대골이라고 부르며 5° 정도의 완만한 경사도를 보이고 있다. 능선 아래쪽에 묘지가 3기(基)있으며 상석과 양마석 등으로 보아 규모가 있는 무덤이며 주민들 사이에 부마이며 승지를 지낸 심승지묘라고 구전되고 있다. 묘지 부근에서 약 100여 m쯤 더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직각으로 꺾어져 서쪽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 성의 형태는 장방형(長方形)토성으로 나타난다. 도로에 의해 훼손된 서벽의 남쪽부분은 잘 알 수 없으나 동벽의 길이가 약 420여 m이고 북벽의 길이는 공장터로 들어가 훼손된 100여 m를 포

함하여 약 176 m, 남벽의 길이가 동벽 끝에서 약 50여 m 정도 남아 있고 동벽 건너편의 서벽이 동벽과 거의 평행하여 240여 m 남아 있는 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 즉, 동서의 폭보다 남북의 길이가 배이상긴 장방형이며 서벽의 남쪽 끝과 도로의 합치점에서 동벽까지의 길이가 약 250 m 정도로 나타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는 형태의 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래의 규모는 동서의 폭이 약 176 m-250 m이고 남북의 길이가 약 420 m 정도로 총길이 1.25 km 정도의 규모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되는 성벽의 길이는 약 786 m 정도이다. 성벽은 동쪽의 경우를 보면 찰흙이 주재료가 되어 축성되었으나 석비레 흙이 섞여 있고 따라서 점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축성방법은 퇴마산 토성과 같이 삭토법(削土法)을 사용 바깥 부분을 깎아내고 안에서 흙을 파서 그 위에 쌓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으며 부락 사람들이 흙을 파가기 위해 훼손시킨 성벽의 노출부분을 보면 돌도 사용한 듯하다. <사진 6 >



<사진 6 > 동벽의 단면  
주민들에 의해 훼손된 성벽의 일부이다.

즉, 축성 도중에 발견되거나 주위에 흩어진 돌을 주위 넣어 성벽의 견고함을 더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벽의 크기를 보면 폭이 약 2 m 안팎이고 바깥쪽의 높이가 2-4 m 안팎의 높이가 약 1.5 m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형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진 7>



<사진 7> 행군이 토성의 동벽

동벽과 북벽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비교적 높이가 높고 잘 남아 있는 곳이다.

동서쪽 능선에는 둘레가 50cm 정도에서 110cm 정도까지인 참나무, 소나무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며 수령은 약 20년~30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안에 낮은 지역은 거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쪽 도로가에는 논이 일부 있는데 넓이가 약 2000여평 정도로 추정되며 토질은 대부분 석비레 흙으로 되어 있다. 행군이 토성은 규모도 큰 편에 속하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도 양호한 편이나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어 시급한 보호가 요청된다.

## 5. 성과 및 문제점

이상에서 퇴미산 토성과 행군이 토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과거 축산땅이었던 원삼면에 대한 자료나 왜란 때의 전사들 전부 다 확인하지 못해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우리 고장에서 구전되어 오던 지명 유래와 왜란에 관한 이야기가 토성이 발견되므로 해서 실증되었다고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고 토성의 규모도 1km 이상으로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어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하겠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가지가 문제로 남게 된다.

먼저 명칭의 문제이다. 가까운 마을 사람들도 성곽, 성밀 이외의 성의 명칭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고 있지 못하며 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문화원에서는 편의상 퇴미산 토성과 행군이 토성으로 부르기를 결정하였다.

두번째는 연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조선군의 접전이 있었고 당시의 축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형상 주거지(住居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연대는 더 올라갈 수 있으며 폐허가 되어 버려진 것을 왜란 때 다시 보수 이용 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전문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신빙성은 적으나 이성계가 쌓았다고 하기도 하고 청, 일 전쟁과 연관시켜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

세번째는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퇴미산 토성과 행군이 토성 일대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은 틀림 없으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행군이 토성의 경우만 해도 조선군이 쌓았다고 하는가 하면 왜군이 주둔했다가 조선군에게 포위당해 물이 없어 패했다고 하는 등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정황(情況)을 복원하기는 어려우나 참고로 주민들의 이야기나 지명유래를 최대한 옮겨 적는다.

싸움의 코-스는 건지산 넘어 해월리에서 아군이 기어넘어 오고 건지산을 통과하여 퇴미산에서 왜군과 싸웠고 행군이 토성 일대에서 크게 왜군이 패하고 도주했으며 태평촌을 경유 물러갔다고 하며 이와 관계 있는 지명을 들면 아래와 같다.

**기넘이** : 건지산 넘어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를 말한다. 蟹越리라고 쓰며 게가 넘어 왔다는 뜻이라고 이천군 지명유래에 적고 있다. 원삼면 맹리, 좌항리 일대에서는 조선군이 건지산 쪽으로 기어넘어 왔다고 해서 기넘이(기넘이, 기네미)라고 부른다.

**진벌(陣벌)** : 진을 쳤던 벌판을 말하는 것으로 좌항 1리(항골)좌항국민학교 뒤편

벌을 말한다.

**말무덤** : 말무데미 등으로 발음하기도 하며 전투시 죽은 말을 거두어 묻은 곳 이라고 하며 원삼농협행군 분소 뒤편에 있다.

**행군이(行軍이)** : 전투에서 패한 왜군이 행군해 갔다고 해서 행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태평촌(太平村)** : 외사면 가좌리 도로변에 있고 아군에게 쫓긴 왜군이 도주하여 숨을 돌리고 “이젠 태평하다”라고 하여 태평촌이라 했다고 한다.

끝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겠다. 내고장에 조상님들의 숨결이 서린유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상의 얼을 계승하는 것과 유적을 보호하는 일에 다같이 힘써야 하겠다. 행군이 토성의 경우 동편 성벽은 마구 파헤치고 흙을 파가는 바람에 성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다시한번 보호를 당부하여 사적 등으로 지정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 요령에 의거 군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 같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등 발굴기(원고매수 자유)
-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원고 12매)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논문(15매)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등의 동정소식(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 문화원 전화 2-2033 번

## 石碑文化의 榮辱

향토문화연구위원

李仁寧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인  
절도 천수(天壽)를 다하면 죽어 땅에 묻  
히기 마련이다.

숫하게 명멸하는 <이름>들 가운데는  
인류의 등불이 있을 수도 있고, 사표일  
수도 있으며, 또 영웅이 있을수도 있다.

반대로 산이나 들에 피고지는 이름모를  
꽃처럼 소리없이 피고지는 그런 이름들도  
무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사람들의 치적을  
글로 새겨 세우는 석비야 말로 그 <이름>  
을 남기기 위한 마지막 손질이 될것이다.

이렇듯 석비에 새긴 글자는 금석문(金  
石文)의 하나로서 귀중한 사료(史料) 가  
되기도 한다.

금석문의 기원은 중국 하(夏)의 우왕  
(禹王)이 손(鼎)을 만들고, 주(周)나라의  
선왕(宣王)이 석고(石鼓)에 글을 새긴것  
이 그 효시라고 전한다.

비(碑)는 한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써  
이는 묘비(墓碑)에서 발달된 것이며, 비

의 일종인 갈(碣)도 이에 속한다.

처음에는 백비(白碑), 즉 글자를 새기  
지 않은 것이었으나, 점차 죽은 사람의 공  
덕을 새기게 되어 비로소 그 기원을 이  
루게 된다.

비라함은 대략 몸돌(身石)이 장방형으  
로 된 것을 말하며, 자연석의 1면을 갈  
아 위를 둥글게 한것은 갈(碣) 이라고  
한다.

비의 체형(體形)은 대개 이수(螭首),  
비신(碑身), 귀부(龜趺)등으로 구분된다.



이수(螭首) : 정현왕후의 친정어머니인  
풍창부부인 전씨 묘비  
(구성면 마북리)

이수는 비의 개석(蓋石: 지붕돌) 또는 비의 갓으로 불리우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는 뿔 없는 용, 즉 이무기를 조각한 것을 말하며 귀부(龜趺)는 비의 기석(基石: 또는 地台石)으로써 거북 모양을 조각한 것이나 이는 고려시대의 석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조선조에서는 왕명이거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약식화 된 반

비(巡狩碑), 기적비(紀績碑),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뇌문비(誅文碑), 정려비(旌閔碑)와 조선 중기 이후 지방관리의 치적과 덕행을 내용으로 한 송덕비(頌德碑)등이 있으며 이밖에 하마비(下馬碑) 표석(表石), 분묘 앞에 세우는 묘표(墓表)와 분묘의 실전을 막기 위하여 묘에 파묻는 묘지(墓誌)등도 있다.

이외에도 많은 유형의 비가 있겠으나 관내에 산재한 유물을 통해서 분별코자 한다.

#### 神道碑와 墓碑는 區分된다

신도비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무덤의



龜趺: 최유경 신도비의 귀부(기흥면 고매 3리에 있다.)

면 옥개형(屋蓋形)의 비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비의 앞면을 비양(碑陽), 뒷면을 비음(碑陰)이라고 하며, 비양에 새긴 글을 비명(碑銘), 또는 비문(碑文)이라고 한다.

또 비음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한다.

비의 종류로는 비문 내용에 따라 문순



李景曾神道碑

(기흥면 영덕리 덕곡부락)

동남쪽 신도(神道)에 세우는 비를 말한다.

즉 묘의 동남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 것이 상례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지형의 형편에 따라 좌향(坐向)에서 묘의 좌측, 또는 동남간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

고려때에는 3품 이상되는 사람의 무덤에 세웠고,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에 한하여 세우도록 하였다.

왕능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은 조선 문종이 법유로써 금하였으나 명유(名儒), 공신(功臣)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한 일도 있으며, 이 경우는 누대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 되기도 한다.

신도비는 반드시 전액(篆額)과 비명(碑銘)이 있고 지은 이(述), 전액한 사람(篆) 글씨 쓴 사람(書)을 관직명과 함께 비양에 명기한다.

전액은 비의 전면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이행하여 측면과 후면의 차례로 돌려 새긴다.

음기는 대개 해서체이거나, 드물게는 예서(또는 신도비)일 경우도 나타난다.

비의 바닥돌, 즉 비대석은 장방형이며 상단에 복련을 두거나 각 면에 우주(遇柱)를 세우고, 동자주(童子柱)를 두어 그 사이에 안상(眼象), 운문(雲紋), 초화문(草花紋)등을 조각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도비는 묘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서 있는 것이므로 묘 앞에 가까이

있는 비는 대개 묘표이거나 묘비, 또는 묘갈로 불리우고 있는 것들이다.

신도비는 당대의 문장가나 명필, 거유(巨儒)들의 합작품이라는데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나 비문 내용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대 이상의 극찬과 미미사려구로 수식되는 경향은 근세로 내려 오면서 더욱 두드러 지는 것 같다.

### 청백리의 묘는 백비가 더 돋보인다

명망 있는 선비묘 청백리였던 박수량(朴遂良)의 묘비는 글자 한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였다.



기묘명현 음애 이자 선생의 부친 묘비  
(기흥면 지곡리)

청백리를 청백 하다고 구구히 기록하는 몇자의 글 보다는 청백 그대로의 표상으로 백비를 세운것이 오히려 더 돋보일 수도 있다.

어느 기업의 엘리트가 실패한 말이 생각난다.

「내 묘비는 -아무개 수전노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놈 -이라고 밖에는 쓸것이 없네」.

물론 농담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여정에서 문득 자신을 발견한 순간 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묘비에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 다손 치더라도 정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비는 후세 사람들이 땅에 묻어 버리거나 깨 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비라는 글자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의례(儀禮)와 예기(禮記)가 처음이며, 진 나라 이전에는 각석(刻石)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바라는 말은 없었다. 이를 비라고 한것은 한나라에서 부터 시작 되었다고 전한다.

묘비가 신도비와 다른것은 전액이 없다는 점이다.

지(誌)나 명(銘)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묘비는 묘역에 세우는 것이며, 비양에는 생전의 직함과 시호를 쓰고 그 다음에 「李公○○지묘」와 같이 새긴다.

부인의 시신이 합장되었을 때에는 「○ 부인김량 장씨 부(附)」 또는 부좌등으로 기록한다.

### 塔碑도 墓碑의 일종이다

비를 묘앞에 세울때는 묘비라고 하지 만 탑 앞에 세울때는 이를 탑비라고 한다.



수경당 도원대사 부도탑과 탑비(포곡면 가실리 백련암.)

탑 앞에 비를 세우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예 이지만,알고보면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탑과 역시 분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사리탑은 고승의 사리를 봉치한 탑이며 부도와 같은것도 입적한 고승의 유골이나 사리를 묻는 탑의 일종이 된다.

관내에는 고려때의 탑비 1좌와 조선

조 후기의 부도탑 1좌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수지면 신봉리에 있는 현오국사탑비이며 하나는 백련암 북쪽 산록에 있는 수경당(瑒景堂), 도원대사(道元大師) 부도탑비이다.

현오국사 탑비는 고려 명종 15년(1185)에 세운것으로써 기존의 여러 조식이 생략된 간결한 것으로써의 특징을 갖고 있다.

비의 가장자리에는 당초문이 섬세하게 각인되어 고승의 공덕을 기리려는 세심한 노력이 기울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분묘 구실을 해야 할 탑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 전란을 겪으면서 도굴 파괴되어 형체도 없이 흩어졌다.

이보다는 몇백년 후에 세운것이지만 백련암의 수경당 도원대사 탑비는 묘갈의 정형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음기는 마멸되어 글자 한자도 판독키 어려우나 비명(碑銘)은 아직도 뚜렷하여 탑비로써의 구실을 하고 있다.

곳이 따진다면 현오국사탑비는 신도비와 견줄만 하고 수경당의 탑비는 묘비나 묘표에 비길수 있을 것이다.

### 孝子碑는 敎訓的 意味가 더 크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은 석가도 예수도, 공자도 맹자도 한마디 썩은 다했다. 이거 백번 지당한 인류의 공통적 작위 아닌가?



金相益孝子碑 (내사면 제일리 산내동 입구에 있다.)

그러나 거개가 잘 읽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효행이 역사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행적을 비에 새기고 만인에게 공개 선양하려 했던것은 다분히 교훈적 의미가 더 컸음으로 한 개인의 명예만으로 규정 지을수는 없을것이다.

옛날에는 동리에 효자가 나면 통문을 돌리고 관장에게 제자를 올려 정려문을 내리게 하고 또 그 지방의 사림이나 향민들이 비를 세웠던 예는 허다하다. (三綱行實錄)

효자비도 형식에 있어서는 이수형, 옥개형, 비갈형 등이 있으며, 이의 보호를 위해 비각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효자의 자손이거나 그 문중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내사면의 제일리 산매동 입구의 효자비를 보면 앞면 비양(碑陽)에 <孝子金相益之碑>라는 비명(碑銘)을 쓰고 좌우에 효행을 칭송하는 시를 새겼다.

孝出于天 源於人道  
天存名存 與天罔墜

- 효는 하늘에서 나리나 인도의 근원이다.

하늘 있고 이름 있으며 하늘과 더불어 그이름 빛나리 -



頌德碑群(駒城面 마북리에 있다.)

이처럼 아낌없고 인색치 않은 효행의 극찬은 누구나 본 받아야 할 인륜지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 虛張聲勢의 頌德碑

용인에는 구성면 마북리와 내사면 양지리등 2개소에 비석군이 전해 오고있다.

두곳다 현(縣)의 치소(治所)였으며 한양으로 통하는 三南 대로변이다.

마북리 비석군의 경우, 현령의 선정비(善政碑)가 10 좌 군수 선정비가 1 좌, 효자비가 1 좌이고 나머지는 용인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한말 인물들의 것이다.

이중 하나는 개화당의 거두 金弘集의 불망비이고 또 하나는 고종때 민씨 세대의 거두였던 閔泳駿의 불망비로써, 이당시, 용인지방 사람들이 세웠거나 아니면 이들과 줄이 닿았던 수령들이 막강한 세력에 추종하여 세웠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를 측정해 보건데 앞쪽 보다는 뒷쪽이, 우측 보다는 좌측의 것이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대가 처질수록 규모가 커지는 반면 도식적이다.

비양에 나타나는 명(銘)을 보면 대개 善政碑, 不忘碑, 愛民碑등 한결같이 愛民 靑德, 靑簡, 恤民等 관장의 덕치에 대한 백성들의 뜨거운 감사의 정을 표시한 것뿐

이다.

이와같은 것을 통칭 송덕비라고 하는데 관장의 덕을 입은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관례이나 이것이 세속화 되어 아첨의 수단으로 악용 되기도 했다.

예로써 수령이 도입하면 일백일 안으로 아문밖 대로변에 선정비를 세움으로써 관장의 비위를 맞추어 놓고 다소 토색질을 막아보자는 가없는 제교의 산물이기도 했고 어떤 수령은 간교한 심복에게 뒷돈을 대주어 선정비를 세우게 한다음 이임길에 자기의 송덕비를 제막하고, 목민관으로써 선치했다는 흔적을 애써 남기려 했던 것도 있다.

개화백경을 보면 이런것도 있다.

어느 파천현감은 떠나면서 길가에 세워 놓은 자신의 송덕비를 제막했다. 그 언저리를 한바퀴 돌아서 비석 뒷쪽으로 가보니 어떤 사람이 먹으로 「今日送此盜」라고 써 놓았다.

즉 오늘 이 도적이 떠난다 - 라는 내용이다.

토색질을 당했던 어느 백성이 분풀이용으로 해놓은 낚시였을 것이다.

이들 본 현감은 먹통을 꺼내어 그 옆에 몇자를 더 썼다.

내일이면 다른 도적이 또 오니 이 도적은 끊임이 없을진저 세상사람이 모두 도적임을 어이하라

「明日來他盜 此盜來不盡 學世皆爲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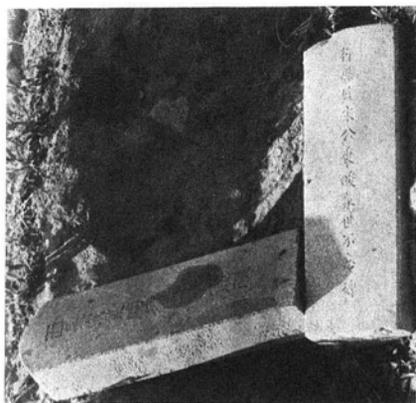
술직한 도둑이다. 이만한 도둑이면 송덕비도 세울만 하다.

가는 도둑(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어지간히 배가 차면 조금은 선정을 베풀 여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 선조때에도 이미 수령들의 허정이 드러나 비를 세운지 30년이 안되는 것은 모두 깨버리도록 한일도 있으며 수령이 떠나거나 죽은 후에 깨지거나 물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 일례로써 송병준이 양지현감을 맡아 선치하여 주민들이 마을어구에 송덕비를 세웠다.



(宋秉駿의 송덕비, 용인, 이천간 도로 포장 공사시 출토되었다가 다시 땅에 묻혔다.)

한일합방 이후 그가 적신으로 물리자

누군가가 그 비를 땅을 파고 묻어 버렸던 것이다.

그것이 83년도 필자의 카메라에 잡혔지만 역사란 옳은 것도, 그른것도 있게 마련인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하여 모든것을 말살해 버리려는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못된 역사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가치는 있는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외사면 백암리에서 소도읍 가꾸기 공사를 할때 땅에 묻혔던 심순택(沈舜澤)의 송덕비가 출토된 일도 있다.

심순택 역시 구한말 고종때에 재상을 지낸 사람이고 청일전쟁때는 영의정으로써 양국틈에 끼게된 조정의 갖가지 어려운 일을 치결했으나 후에 청나라 공사 원세개(袁世凱)의 사주를 받고 왕의 폐립 주장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의 의분을 사게 되었는데 그의 불망비는 이때 땅에 묻히게 된것 같다.

그는 특히 영도령사사(領敦寧司事)에 승차하여 청령공(靑寧公)이라는 시호를 받음으로써 생전에 공으로 봉해지는일의 시초가 된 인물로써도 유명하다.

지금은 민속촌 관아 입구로 옮겨져 다행히 빛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송덕비에 있어서 처럼 영욕이 엇갈리는 일도 그리 흔치는 않을것이다.

## 임금이 내리신 뇌문비(詠文碑)

용인에는 지방문화재 제 17호로 지정된 뇌문비 1좌가 전하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를 시호비 라고도 하지만 뇌(詠)자의 본 뜻은 죽은사람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애도의 뜻을 포함 哀死而述其行 -임으로 이를 제문비라고 하는것이 합당할지 모르겠다.

용인을 역북리에 있는 뇌문비는 정조 대왕께서 채제공 사후에 친제 하사한것으로써 채제공은 10여년간 재상으로 선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의 배봉산에서 화산능(수원)으로 천장한 이후 초대 화성유수가 되어 수원성을 축조한 인물이며 창덕궁에서 동궁(사도세자)의 폐위론이 있을때 상복을 입은채 열흘 동안이나 부복하여 부당함을 주청했던 순신(純臣)으로써 정조로 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며, 조선 후기의 대 정치가이다.

1977년(정조 23) 정월 18일 공이 하세하자 이의 부음을 들은 정조께서는 심히 애도한 나머지 뇌문을 친제하시고 비를 세우게 하였으니 기미 3월 26일의 일이었다.

이 날은 채제공이 하세한지 67일 후가 되는 날이었다.

명(銘)의 첫머리에 <의정부 영의정 규장각제학 화성유수 장용의사시 문숙공 장일에 자신을 보내어 그 영에게 고하니 이

와 같다)로 시작하여 5백여 언(言)으로 끝이난다.

어진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는 도타운 왕의 성충이 단단한 비석의 자구(字句)마다 아로 새겨진 이러한 바야말로 군의 신강의 표본이며, 일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고도 남을만 하다.

### 시호 소멸된 下馬碑

용인 관내에는 네군데에 하마비가 전한다. 그 하나는 수지면 상현리 도로변에 위치하며, 또 하나는 구성면 마북리와 언남리, 그리고 모현면 능원리에 각각 위치한다.



포은 묘소 입구의 하마비 (구성면 언남리에 있다.)

하마비는 대개 묘갈형으로써 「大小人皆下馬」라고 했거나 <下馬碑>라고 썼다. 이를 직역하면 상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 이는 종묘나 문묘, 그리고 왕장이나 성현의 탄생지 또는 그 분묘 앞에 세우는 것으로써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때는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태종13년(1413) 종묘와 길문 앞에 표목(標木)을 세운 것이 그 효시이고 세종 1년(1419)에 이르러서는 상왕이 거처하는 궁가의 문앞에 세운 것이 돌비의 최초가 된다.

이러한 제도는 점차 파급되어 거유, 명현의 분묘에서부터 향교, 서원의 문묘와 국왕의 장인이나 장모의 묘 앞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지면 상현리 하마비의 동쪽에는 동방 4현의 한분이신 정암 조광조 선생 신위를 봉안한 심곡 서원이 있고 구성면 언남리는 중국 4성 10철의 위패가 봉안된 문묘가 있으며, 마북리의 것은 중종의 장모이자 정현왕후의 생모인 연안 부부인 田氏의 묘 앞이 되고 능원리는 포은 선생의 사당과 묘, 그리고 선생의 신위가 봉안된 충열서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상의 예에서 볼 때 하마비는 왕후 장상이나 거유 명신의 묘앞, 또는 그 신위가 봉안된 건물의 입구에 위치하여

그 앞을 지날때는 반상이나 지체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경의를 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내사면 양지리와 한천서원이 있던 이동면 천리에도 있었으나 훼손되었다.

이제 하마비의 위엄과 기능이 소멸된 지금 우리는 조상 전래의 외경(畏敬) 문화와 그 풍속도를 상실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연안부부인(정현왕후의 생모이자 증종의 장인이다) 묘 입구의 하마비와 비각(구성면 마부리)

### 表石의 現住所

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표석은 경계표시 소유권표시 부작위표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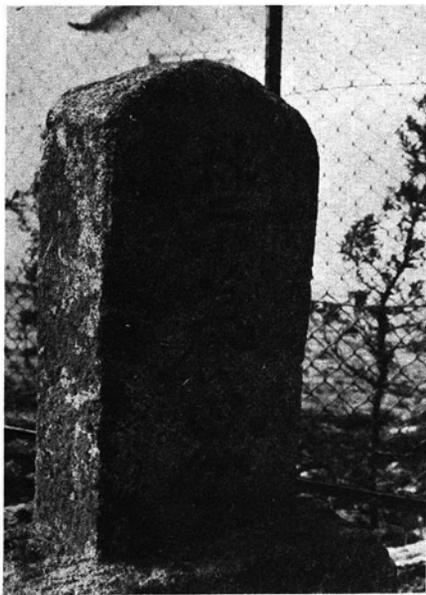
표시 등 제각기 다양한 기능이 있다.

용인 관내에서는 이미 조선 초기에 표석이 세워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동면 서리 불당골 입구의 <연안이씨 선영하>라고 새겨진 표석은 세종18년(1436)에 세워졌던 것으로 옛날 비의 글씨가 마멸되어 李義益이 다시 세우다(正統元年 四月日立後 五〇一年 戊寅八月 舊字類 改堅 李義益)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표석에 관한 문헌을 아직 찾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석비 문화의 한 부분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안이씨 선영입구>라는 표석 바로 앞에 <금양계>라고 새긴 표석 하나가 더 있다.



조선 세종 18년인 1436에 최초건립된 것으로 기록된 표석 이동면 서리에 있다.



금양계 금지구역의 표석 금양계, 금  
금지구역의 표석. (이동면 서리에 있다.)

이것은 경제표식으로써 이 구역으로부터  
터는 건축물은 물론 양축이나 전답의  
경작까지도 엄격히 규제하는 통제 구역  
임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은 본래 조선 태종때 원종공  
신으로 책록된 이귀령의 사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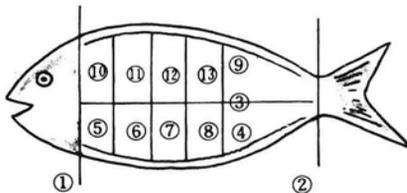
이귀령은 고려 충숙왕때(1345)에 태  
어나서 세종 21년(1439)에 별세하여,  
이 곳에 안장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왕  
으로부터 받은 사패지를 수호하면서 수  
백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어 오늘에 이  
르른 곳이다.

이 <금양계>라는 표석은 한 가문의  
선영을 지켜온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 그 주변  
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거센 세태의 파고  
에 밀려 표석으로서의 권좌가 무색 퇴  
조해 가는 기로에 선 것 같다.

비록 길가에 버려진 하나의 돌비일지  
라도 나름대로 깊은 연원과 사연이 간  
직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  
껴야 한다.

### ● 알아두면 상식

#### ● 양식 때의 생선은 이런 순서로



- 생선을 먹을 땐 우선,  
 ① 머리를 자르고  
 ② 꼬리를 자르고  
 ③ 중앙을 가르고  
 ④ 아랫배를 가르고  
 ⑤ 왼쪽 아래부터 먹고  
 ⑥⑦⑧ 순으로 먹은 후  
 ⑨ 윗 꺾질을 제치고  
 ⑩ 윗고기를 왼쪽부터 먹은 다음  
 ⑪⑫⑬ 순으로 먹는다.



## 문교부 주최

### 경로효친 포스타공모 채택

태성중고등학교  
미술교사[이강수]



태성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수」교사가 지난 4월 문교부에서 실시한 경로효친 포스타 공모에 채택되어 전국 초중고교에 배부, 게시되었다.

「이강수」교사는 1972년 11월에 현 태성중고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미술반을 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강수」교사의 약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충남대전과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
- 1972년 11월 태성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현 새마을과 주임)
- 1985년 현재 태성중학교 재직중

태성중고등학교 미술반 활동실적

- 1976년 9월 문화원 연합회 주최  
제 1회 전국학생 새마을 미술작품 공모전

- 내무부장관상(최고상)의 6명 입상(KBS-TV방영)
- 1977년 7월, 문화원 연합회 주최  
제 2회 전국학생 새마을 미술작품 공모전  
문화공보부장관상(최고상)의 4명 입상(KBS-TV방영)
- 1979년 9월, 중앙일보사 주최  
제 3회 전국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대상, 2명의 금, 은, 동상 5명(TBC-TV방영)
- 1984년 10월, 유네스코 주최  
유네스코 청소년 미술실기대회  
대상 1명의 5명입상
- 1984년 10월, 경기도 한국미술협회 주최  
중고등학교 미술 실기대회  
특선 3명의 9명 입선
- 1984년 10월, 경기도 교육위원회 주최  
중등학생 미술실기대회  
중, 고별 각종합우승(3년째)
- 1985년 4월, 문교부 주최  
경로효친 포스타 공모  
「이강수」미술교사작 포스타 채택  
전국 초, 중, 고교에 배부 게시



## 어버이날 행사



용인군은 지난 5월 8일 용인읍 회의실에서 「송인식」용인군수와 「홍순옥」용인읍장, 「라복용」대한노인회 용인군지부장, 관내 기관장 및 유지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어버이날 행사를 갖고 효자, 효부, 장한아버이, 선행어린이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다.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 ○ 도지사 표창

전통모범가정 : 노을득(내사면 추계리)

아동복지유공 : 박재성(용인읍 김량장비) 김혜경(구성면 동백리)

모범어린이 : 유성희 (수정국교)

시설모범어린이 : 김정숙(선한사마리아원) 장은경(혜인원)

○ **군수표창**

효자 : 김장영(용인), 정봉춘(포곡) 윤문노(내사)

효녀 : 이민배(모현)

효부 : 정인섭(용인) 김상순(모현) 김민자(구성)

한상분(수지) 이성숙(기흥) 원제순(남사)

권정순(이동) 오명순(원삼) 김중순(외사)

장한아버이 : 조소순(포곡) 김일순(구성) 박래혁(수지)

한은순(기흥) 오신홍(남사) 오효영(이동)

임정자(원삼) 오학선(외사) 고용식(내사)

선행어린이 : 이향아(용인국교 6년) 서기훈(포곡국교 5년)

노승현(왕산 " 6년) 강미숙(구성 " 5년)

김숙진(대지 " 6년) 김해중(신갈 " 6년)

최순선(남사 " 5년) 이은하(용천 " 6년)

김기남(원삼 " 6년) 박한규(백암 " 6년)

김인학(양지 " 6년)

○ **대한노인회 용인군지부장 표창**

효자 : 변진표(기흥면 서천리)

효부 : 박상완(포곡면 신원리)

착한어린이 : 박경호(서릉국교 6년) 천명희(용천국교 6년)

---

## 제 2 회 피아노 경연대회

---

본 문화원에서는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 2회 피아노 경연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가자격** : 초, 중학교 학생
- **일 시** : 1985년 9월초순
- **장 소** : 문화원 강당

- 신청마감 : 1985. 8. 20 18:00 까지
- 신청장소 : 문화원
- 참가비 : 5,000 원
- 시상 : 특상 아리아 울겐 1대 각부별 금, 은, 동상.

○ 각부별 지정곡명

제 2회 피아노 경연대회 지정 곡명

제 1부 (국민학교 1, 2학년)

CLEMENTI Sonatine Op. 36 No. 5

3rd Mov. Rondo Allegro di molto

제 2부 (국민학교 3, 4학년)

KUHLAU... Sonatine Op. 55 No. 6 (제 2권)

1st. Mov. Allegro Maestoso

제 3부 (국민학교 5, 6학년)

MOZART... Sonata K. 457

1st. Mov. Molto Allegro

제 4부 (중학교)

CHOPIN..... ETÛD OP. 10 No. 4 CIS  
Minor Presto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2-2033

## 제 2 회 중고교생 영어회화대회

문화원에서는 관내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영어 회화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985. 7월하순
  - 장 소 : 용인 문화원
  - 참가범위 : 고등부 각학교 1개팀 (2~3명)  
중등부 각학교 1개팀 (2~3명)
  - 소요시간 : 7분 이내
  - 주 제 :
    1. 86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설명
    2. 88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설명
    3. 용인지역 관광지 및 문화유적 안내와 설명※ 3가지 주제중 1가지 선택
  - 원고제출일 : 1985. 7. 5 까지 4부 제출.
  - 제출처 : 용인 문화원
-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2-2033

##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 성 명                      | 주 소 | 현 직  |
|--------------------------|-----|--|
| 이인영<br>정양화<br>홍순석<br>김종두 |     | 공무원<br>용인상고 교사<br>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br>용인여중 교무과장 |

## 문화원 문예진흥위원

| 성 명   | 주 소 | 현 직  |
|---|-----|--|
| 이강수<br>이원석<br>정규현<br>안종식<br>박상돈<br>김수호<br>김동혜<br>박종용<br>김윤향<br>최희면<br>오민근 |     | 태성중고 미술교사<br>용인상고 미술교사<br>용인상고 음악교사<br>용인상고 교사<br>공무원<br>태성중 교사<br>공무원<br>동양화가<br>사진 담음회 회장<br>공무원<br>영지회 꽃꽂이 사범 |

##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초상

시조문학의 백미(白眉)로 일컬어지며, 조선 중엽의 정치가로서 영상의 직위에 올랐다.

시·서·화에 모두 능통했던 인물이다.

선생의 8代 종손가에 2점의 초상이 전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녹포단령(綠袍團領)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고 하나는 유복(儒服) 차림의 반신상(半身像)이다.

전래되었던 선생의 초상은 모두 4본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려실기술 사전전고 편에는 “충청도 해미(海美) 영당에 임진년 봉안”이라고 나타나고 있으나 실전되었음으로 현존하는 것은 국립박물관 소장본과 가묘본 2본 뿐이다.

상용(相容)은 모두 정면상(正面像)이나 포치인배(布置安配)에 있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본과 용인의 가묘본(家廟本)과는 약간의 상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묘본은 전신이 규각선(圭角線)으로 포치되고 흉배의 쌍학이 요대(腰帶) 위로 노출된 것에 반하여 박물관 소장본은 방형으로 나타나는 흉배의 쌍학중 아래의 것은 각대(角帶)로 가리워져 있으며, 팔 소매가 복부 아래로 치우쳐 안정감에 있어서는 가묘본에 미치지 못한다.

호피 문양의 반점도 가묘본은 간결하게 표현되고, 단령(團領)의 문양이 세밀된 점에 비하면 박물관의 것은 조밀하다. 대개의 초상이 7·8분면상인데 반하여 남구만의 초상은 정면필법(正面筆法)으로 사출하였다는 점이 회화사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남구만의 초상은 영의정 재직시 모사된 것으로 보이며, 초상 상단에는 최명길의 손자이며,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최석정(崔錫鼎)의 찬문이 묵서되어 있다. 이는 남구만 사후의 유상(遺像)에 추서(追書)된 것으로 보인다.

견본설채(絹本設彩)이며 화폭은 230×117 cm이다.

## 편 집 후 기

- 7월! 녹음이 우거진 싱그러운 계절이다. 들녘에는 여름을 더하듯 목소리가 채 피지 못한 저-하는 매미소리를 비롯하여 이름모를 풀벌레 소리가 킁전을 울린다. 또한 산야에는 밤나무 꽃이 활짝피어 꿀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 여름을 맞아 제3호로 나래를 펴는 「용구문화」는 밤꽃이 꿀벌을 불러모으듯 원고를 수집하느라 동분서주하였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없지않다.
- 이번 제3호에는 문화원장과 향토문화 연구위원 등이 원삼면 맹리에 소재한 토성(土城)을 발견,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집한 역사적인 귀중한 자료를 수록하게 되어 향토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향토지로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순방」편을 새로 마련하여 용인 관내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 산업의 요람인 기업체를 순방, 소개키로 하였다.
- 앞으로 「용구문화」 책자의 진(進)일보를 위해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연구위원과 문예진흥위원, 읍면위원들의 적극 참여로 군민의 뜻에 부응, 보다 알찬 내용으로 문화창달에 일익을 담당할 「용구문화」로 비약시키도록 다짐해 본다. < 雄 >



## 용 구 문 화 제 3 호

1985년 6월 25일 인쇄

1985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 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편 집 위 원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 - 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